

이슈페이퍼

하이디스 공장 폐쇄, 원인과 대책

2015.1

한지원(연구실장)

jwhan77@gmail.com

1. ‘떡튀’의 비극,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할까?

하이디스테크놀로지(이하 하이디스) 경영진은 지난 1월 6일 공장폐쇄를 통해 377명 종사자 대부분을 해고할 것임을 알렸다. 2013년 400여명을 해고한데 이어 2년 만이다. 하이디스는 현대전자가 부도나며 정부 주도 하에 2002년에 중국 BOE에 매각되었고, 2008년 다시 대만 E-Ink에 매각되었다. 10년 전 1,700명이던 노동자는 이 과정에서 수차례의 구조조정을 겪으며 5분의 1로 줄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정당한 시장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해외 떡튀 자본의 부당한 기술 유출과 정부 규제의 실패에서 비롯됐단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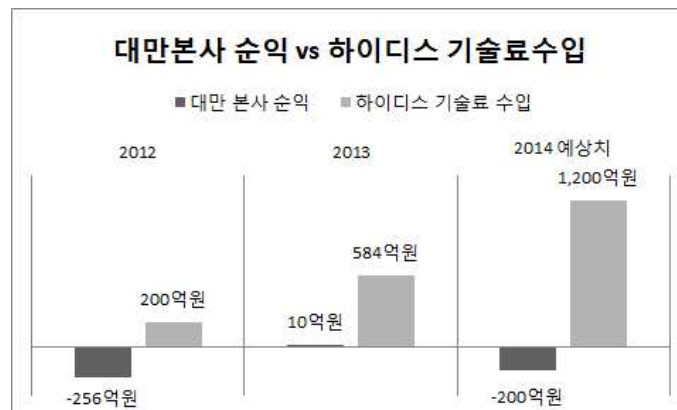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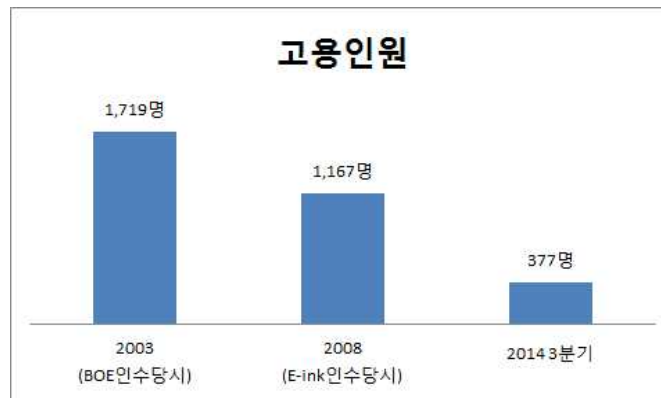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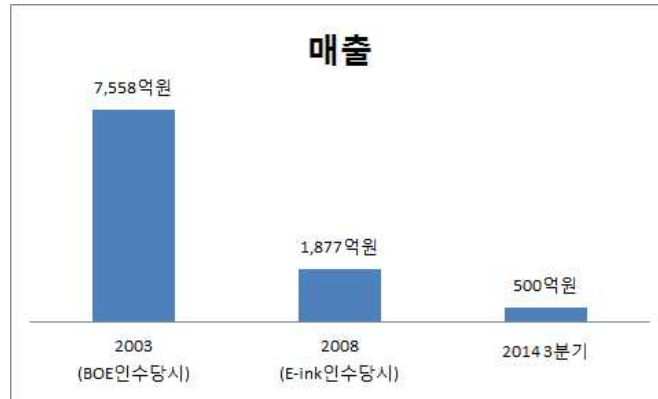
현재 LCD산업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위협할 만큼 성장한 중국 BOE의 기술은 모두 2002~2007년 하이디스에서 제공된 것이다. 중국 최초의 현대식 LCD 생산라인은 2003년 하이디스가 직접 중국에서 가서 지어줬다. 그리고 BOE는 검찰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2005년부터는 4천여 건의 기술을 아예 통째로 불법으로 빼갔다.

BOE가 떠난 이후 하이디스를 인수한 대만자본 E-Ink도 비슷했다. E-Ink는 하이디스의 원천기술을 하이디스 경쟁사에게 팔아 기술료 수입을 챙겼다.¹⁾ 현재 하이디스의 FFS 기술은 Sharp, AOU, CPT, CMI, BOE 등 삼성과 LG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세계 LCD업체에 제공되고 있다. 하이디스 본사인 대만 E-Ink의 2013년 순익이 10억 원에 불과했는데, 비용으로 1원도 들어가지 않는 하이디스 기술료 수입은 580억 원에 달했다. 2014년에는 이 기술료 수입이 1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만 본사 순익의 3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본사에게 하이디스 특허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대만 E-Ink는 이제 한국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해 특허권을 아예 본사로 가져가려 하고 있다.

한국에서 기술료만으로 1천억 원 이상을 버는 기업은 흔치 않다. 동시에 그런 기술을 갖춘 기업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사례는 더욱 흔치 않다. 하이디스 사태가 정부의 방관 속에 떡튀 자본의 기술 유출로 노동자들의 희생당한 비극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1) 하이디스 역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한지원, 『하이디스, 두 번째 '쌍용차 사태'를 막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2013. <http://www.awm.or.kr/bbs/view.php?board=report&nid=39593&page=3&category1=1>

〈하이디스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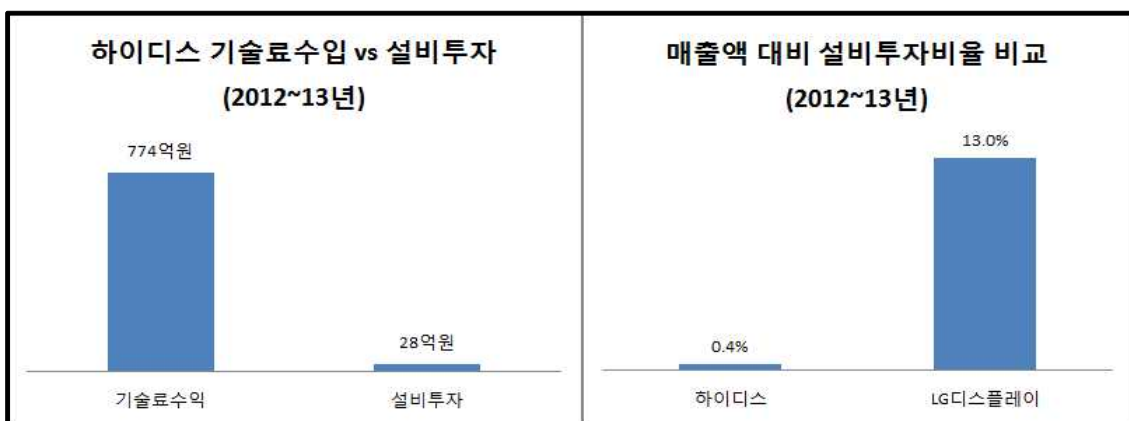
2. 공장폐쇄, 불가피한 선택인가? 의도된 전략인가?

시측은 하이디스가 생산물량이 없어 공장폐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에는 두 차례의 공장 매각도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하이디스 본사인 대만 E-Ink의 주주총회 자료를 보면 다소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TFT LCD에 관해서는, E ink는 소비자 시장에서 가격인하 경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선택했으며, 개발 중인 틈새시장과 좀 더 수익성 있는 전략인 기술 FFS 특허 대여를 선택했다.”²⁾

여기서 TFT LCD는 바로 하이디스를 지칭한다. 결국 E ink는 이미 몇 해 전에 하이디스 생산을 포기하고 특허권 대여로 전략을 집중했다는 것이다. 실제 2012년부터 하이디스 핵심 기술은 경쟁사에게 모두 팔려나간 상태다. 하이디스의 FFS 특허권은 Sharp, AOU, CPT, CMI, BOE 등 삼성과 LG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LCD업체에 공유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하이디스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이다. 경쟁업체에 대한 기술우위를 포기하니 하이디스가 시장에서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렇다면 비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했을까? 하지 않았다. 하이디스는 2012~13년 특허권 대여로 기술료수입 774억 원을 챙겼지만 설비투자는 단 28억 원밖에 하지 않았다. 설비투자비율은 매출액대비 단 0.4%다. 같은 기간 LG디스플레이 13%와 대비된다.



2) “In terms of TFT LCD, E Ink chose to shun away from the price-cutting competitions in the consumer markets and worked on our niche markets we are developing as well as the technology licensing for fringe field switching (FFS) so as to maintain a more profitable operating strategy” 2014 Annual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Meeting manual 8p

3. 대만으로 가는 하이디스 기술료 수입,

정당한 거래인가 국부유출인가?

E-Ink 공장 폐쇄 계획의 핵심은 하이디스 기술료 수입을 본사로 모두 가져가는 것이다. 특허권은 당분간 한국 하이디스가 소유하겠지만 세상의 이목이 줄어들면 헐값에 대만 본사로 매각될 것이다. 종사자 대부분을 해고하고 나면 어차피 한국 법인은 종이회사로 전락해 감시할 사람도 없어진다.

현재 하이디스 사측이 장부에 적어놓은 FFS 특허권 가치는 15억 원에 불과하다. 현재 상태에서 특허권 매매가 이뤄지면 15억 원을 크게 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특허권이 벌어들인 현금이 2012~13년 두 해에만 이미 8백억 원에 달했고, 10년간 계약이 확정된 금액만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특허공유 계약에서 보통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추가로 기술료로 받는 것(러닝로열티)을 감안하면 이 액수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 공유 기간	특징
Sharp	2012.7부터 10년	하이디스와 같은 중소형 LCD전문.
AUO	2012.8부터 10년	E-ink가 AUO 계열사를 인수
CPT	2012.10부터 10년	E-Ink와 조인트벤처 설립
CMI	2013.11부터 10년	E-Ink가 CMI 재무책임자 영입
BOE	2014.4부터 10년	하이디스의 전 소유주
합계	2024년까지 약 5천억 원 계약. 러닝로열티로 연 2~3백억원 추가.	FFS 특허권의 장부가치는 15억원

한편, 확정된 미래 현금수입이 이미 5천억 원에 육박하는데 회사는 이 기술의 가치를 단지 15억 원으로 장부에 계속 기록해 두고 있다. 가져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다. 만약 회계장부에 특허권 가치를 장부에 5천억 원으로 기록한다면, 주위의 시선 상 하이디스를 합부로 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결국, 현재의 공장폐쇄 계획은 하이디스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기술을 빼가는 국부유출에 다름 아니다.

4. 본사 차입금, 결국 알짜자산 빼갈 의도였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공장을 폐쇄한다고 하지만, 하이디스는 사실 외부 차입금이 단 한 푼도 없다. 하이디스 채무 1천5백억 원(2013년 말 기준)은 전부 대만 본사에서 온 돈이다.

내부 자금 여유가 있어 굳이 외부에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공장 폐쇄를 발표하고, 대만 E-ink가 조만간 투자(대여) 자금을 회수한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만 자본이 하이디스의 알짜 자산을 마음대로 가져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이디스가 생산을 중단하고 채무 변제를 하게 되면 대만 본사가 유일무이한 채권자로 자산 처리와 관련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보통의 회사들은 은행이나 투자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고 회사 구조조정 혹은 청산 계획과 관련해서도 감시를 받는다. 하지만 하이디스는 외부의 감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장 폐쇄 후 자산을 처리할 수 있다.

처음 의도가 뭐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본사가 하이디스에 빌려준 돈은 하이디스 알짜 자산의 획득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특허권 외에도 하이디스는 중국 BOE 주식을 1천억 원 소유하고 있다. 2004년 중국에 LCD 공장을 지어주고 대가로 받은 주식이다.

하이디스가 정리해고를 통해 노동조합을 회사 밖으로 내몰고 나면 대만 본사는 특허권과 BOE 주식을 채권에 대한 보상으로 싸게 가져갈 수 있다. 하이디스 인수금 2천 6백억 원과 대출금 1천 5백억 원, 도합 3천 1백억 원을 E-ink가 지금까지 투자한 셈이니 하이디스의 특허권과 BOE지분을 가져가면 최소 3천억 원 이상 이득이다.

요컨대, 하이디스 노동자들과 지역사회를 들러리 세워 대만 자본이 지난 6년간 투자수익률 100%의 ‘먹튀’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5. 노조를 상대로 한 거짓말들,

왜 대만자본은 노조를 속여야만 했나?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와 한국노총 하이디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사측은 몇 달 간 계속해서 노동조합에 공장 매각과 관련한 노사합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노조에 매각 관련 협조를 구하려면 인수 예정자가 누구인지 정도는 알려줘야 하는데 일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막았다고 한다.

이제와 보면, 회사가 노조에 요구한 것은 매각에 관한 협조라기보다는 2008년 노사합의를 폐기시키기 위한 꼼수에 가까웠다.

〈2008년 노사합의서〉

“6. 타법인 매각대금 재투자 : 비오이하이디스가 타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 대금 전체는 비오이하이디스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7. 기술유출방지 : 비오이하이디스 소유의 기술을 다른 곳으로 매각하지 않는다³⁾

2008년 노사합의서의 두 조항은 대만 E-ink가 특허권과 BOE지분을 가져가는데 결정적 장애가 된다. 특허권은 매각이 아예 불가능하고, BOE 지분도 매각 시 그 돈을 하이디스에 묶어둬야 한다.

그래서 대만 경영진들이 하이디스 자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위 합의서를 폐기시키든지 아니면 서명 주체인 노조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 대만 경영진들은 2014년 12월에 공장 매각을 핑계로 합의서 폐기를 요구했다가, 그게 잘 통하지 않자 이제 아예 노조를 없애겠다고 조합원 전체를 정리해고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3) 2008년 비오이하이디스와 전국금속노조경기지부비오이하이디스지회 간의 노사합의서

6. 손 놓고 있는 정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보이질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LCD 기술은 7세대 이후 기술만 국가적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3.5세대를 운영하는 하이디스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산업전문가들은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BOE는 하이디스 FFS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8세대 LCD 생산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LCD의 세대는 생산하는 유리기관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데 FFS 기술은 유리기관 사이즈에 상관없이 적용가능하다. 세대를 기준으로 보호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편할지는 몰라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 BOE가 하이디스 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제품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

정부가 의지만 가진다면 탁상행정을 넘어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기술 보호 관련 제도가 부족하더라도 정부가 아래 세 부분에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첫째, 특허권의 의도적 저평가와 이에 혈값 매각 가능성에 대한 산업자원통상부의 분명한 지적. 이미 계약된 액수가 수천억 원에 달하고, 원천기술로서의 프리미엄을 누리는 하이디스 FFS기술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다시 해줘야 한다. 별 의미 없는 LCD 세대 구별만으로 정부의 기술 보호 범위나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둘째, 연관된 문제로 하이디스 특허권 공정가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현재 기업회계법은 장부가치와 실체가치가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자산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15억원의 장부가치과 5천억 원 이상 현금수입이 예상되는 실제 가치 사이에는 괴리가 크다. 매각이 예상되므로 의도적 저평가 상태가 계속되면 혈값 매각 배임 가능성도 있다.

셋째, 2008년 노사합의안에 대한 존중 권유.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떡튀’를 규제하는 것은 노사의 2008년 합의안이다. 정부가 나서 사측에 이에 대한 존중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7. 기술료수입의 재투자-고용유지,

노사 간의 윈-윈 전략은 불가능한가?

하이디스의 어려움은 무엇보다 투자부족으로 인한 설비노후화와 기술수입료만 챙기는 알뜰한 경영전략 때문에 발생했다. 중국과 대만 기업들의 LCD설비 증설로 세계적으로 과잉경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이디스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연 500억~1천억 원에 이르는 기술수입료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틈새시장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하이디스 문제는 개별 기업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문제란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4백여 명의 고용과 지역의 생산이라는 현실적 문제 외에도 잘못된 해외매각과 정부정책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 때문이다.

E ink는 현재 본사가 몇 해째 적자를 보고 있어 장기적 투자보다는 쉽게 현금을 바로 챙길 수 있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 전형적인 ‘떡튀’의 방식이다.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외자본의 이런 단기적 전략에 제동을 걸어 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외투기업들은 상당수가 본사 위기를 국내 계열사에 전가하는 행태들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일반적 현상은 정부의 외투기업에 대한 소극적 규제와도 관계가 깊다.

이번 하이디스 사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통해 노동조합, 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외국자본의 지나친 탐욕을 규제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대만 자본 역시 한국 사회가 일정한 규제를 가한다면 그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